

#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

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

한국콘텐츠진흥원  
미국사무소



## 주간 심층이슈

### 『21세기에 만들어진 흑백무성영화, <아티스트>』

#### ◎ 작성취지

- 프랑스 영화인 <아티스트>가 어떻게 미국에서 인정받고, 특히 미국영화를 애호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함

#### ◎ 작성순서

- 들어가기
- <아티스트>는 어떤 영화인가?
- 정리 및 시사점

### 1. 들어가기

#### ■ <아티스트> 아카데미 작품상 외 4개 부문 수상해 화제

- 2012년 2월26일 열린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프랑스영화인 <아티스트>가 작품상, 감독상, 남우주연상, 의상상, 작곡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함
- <아티스트>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유일한 무성영화이기도 함
-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가 유성영화 시대를 맞아 도태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임
- 흑백영화에 무성영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며, 단선적인 스토리라인으로도 작품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었음
- 미국영화를 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

- 외국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
- 아카데미 시상식의 결과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데, 회원의 대부분이 미국계 백인이며, 전례를 살펴보았을 때 백인이 출연하지 않는 영화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임

## 2. <아티스트>는 어떤 영화인가?



### ■ <아티스트>는 어떤 영화인가?

#### ○ 기본정보

- 감독은 미셸 아자나비슈스이며, 장 뒤자르맹, 베레니스 베호, 존 굿먼, 제임스 크롬웰, 페넬로피 앤 밀러, 미시 파일, 말콤 맥도웰 등이 출연함
- 2011년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제작된 영화로,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음

- La Petite Reine, Studio 37, France 3 Cinema, CanalPlus, 워너브라더스 프랑스 등 대부분 프랑스에서 투자를 받아 제작되었음
- 프랑스 배급은 워너브라더스가 담당했으며,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는 미국, 영국, 호주 배급을 담당함
- 국제무대 성적은 2011년 5월15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음
- 제작비는 총 1,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, 2012년 3월20일 기준 북미에서 4,234만 달러, 전 세계 수입은 1억 1,446만 달러를 기록함

### ○ 기술적 특징: 흑백무성영화

- <아티스트>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던 할리우드의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를 그려낸 흑백무성영화임
- 대사는 영어로 쓰인 인터타이틀 카드로 제시되고 현악기로 구성된 배경음악이 침묵을 채움
  - ※인터타이틀: 영화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 혹은 자막
- 사운드가 강조되어야 하는 지점에서는 배우들의 목소리나 외부의 소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00% 무성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, 무성영화의 형식을 따라 만들어진 영화임

### ○ 줄거리

- 조지 발렌타인(장 뒤쟈르맹)은 무성영화계의 스타로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시키고,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이제한 배우가 “말하는”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섬
-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발렌타인은 직접 제작과 연출까지 나서며 무성영화를 고집하지만 점점 대중의 인기를 잃어가고 개인적으로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됨
- 그러는 동안 발렌타인과 애뜻한 감정을 나누고 있던 배우지망생 페피 밀러(베레니스 베조)는 유성영화에서 인기를 얻어 스타가 됨
- <아티스트>는 무성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와 몰락과 유성영화로

인기를 얻은 배우의 성공과 좌절, 둘 사이에 계속해서 엇갈리는 운명과 사랑을 그렸음

- 또한, 화려한 영화배우로서의 삶과 그림자를 흑백무성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있음

### ○ <아티스트>의 디테일: 어떻게 흑백무성영화를 재현하는가?

- 이 영화가 가지는 시대적 배경을 영화사적 디테일을 살려 적극적으로 영화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음
- <아티스트>의 화면비율은 1.33:1인데, 현재 HDTV의 화면비율이 16:9임을 감안하면 비교가 쉬움
- 아카데미 비율이라고도 불리는 1.33:1인 이 비율은 <아티스트>가 시간적 배경으로 정한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만들어진 흑백무성영화들에서만 발견되는 화면비율임
- ※실제로는 1.37:1이지만, 일반적으로 1.33:1이라고 알려져 있음
- 흑백영화의 느낌을 살리려고 한 또다른 예는 21세기에 만들어지는 35mm 흑백필름의 콘트라스트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, 컬러필름으로 촬영한 뒤 흑백으로 전환했다는 것임
- 또한, 초당 프레임 속도를 일반적인 24/fps(frames per second)가 아닌 22/fps로 조정해 빈티지 느낌을 살리려고 했음

### ■ <아티스트>의 국적은 어디인가?

- 최근에는 영화를 국가 간에 합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 목적으로 “한일합작블록버스터” 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영화에 뚜렷한 국적을 붙이는 것이 애매하거나 무의미할 때가 많음

### ○ <아티스트>는 프랑스 영화라는 의견

- 인터넷무비데이터베이스(IMDb)에 따르면, <아티스트>의 국적은 프랑스와 벨기에임
- 통상적으로 영화의 국적은 영화를 찍은 장소, 영화에서 사용된 언어보다는,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한 제작사의

소속을 따르는 것이 보통임

- <아티스트>의 제작비는 프로듀서인 토머스 랭먼(Thomas Langmann)이 운영하는 제작사 <Le Petite Reine>에서 일부를 조달했고, 그 외에는 프랑스 유료TV채널인 <CanalPlus>, 프랑스 제작사 <Studio37>, <France 3 Cinema>, 그리고 <워너브라더스>의 프랑스 현지법인인 워너브라더스프랑스에서 지원함

### ○ <아티스트>는 미국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가?

- 미국 내 판권은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가지고 있지만, 제작에 참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
- <아티스트>의 미국 공식웹사이트가 “프랑스의 저명한 감독이 만든 첫 번째 미국영화” 라고 표기한 데에서, <아티스트>의 영화국적은 어디인가에 대한 혼란이 빚어졌음
- 그렇지만 AMPAS(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)를 비롯해 일반적인 다른 미디어들은 프랑스 감독과 프랑스 배우가 출연하였고, 또한, 대부분의 제작비가 프랑스에서 투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<아티스트>를 프랑스영화라고 표기해왔음
- 미국 스태프를 고용해 영화를 만든 이유는 로스앤젤레스가 영화촬영 장소이기 때문임
- 또한, 현지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현지 스태프를 고용하였으며, 이는 통상적인 일임
-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
- 2011년 만해도 176편의 영화/드라마가 세금 공제 혜택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했지만, 이 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은 영화/드라마는 27편에 불과함
- <아티스트> 역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, 추첨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짐
- 프로듀서인 토머스 랭먼(Thomas Langmann)은 한 인터뷰에서 <아티스트>는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제작 당시 혜택을 받지

- 못했다고 말한 바 있음
- 프랑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미국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며, 또한 감독, 음악감독, 촬영감독, 주연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스태프를 현지에서 고용했기 때문임
  - 그렇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프랑스에 이익이 되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였음
  - 영화에서 사용된 언어의 경우,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지 않고, 영어로 인터타이틀 카드를 작성한 이유는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
  - 따라서, 제작비 지원 부분을 제외한다면, <아티스트>를 프랑스 영화라고 부르거나 외국어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한 것은 아님
  - 하지만 영화 자체만을 보고 국적을 붙이자면 프랑스영화가 맞다고 볼 수 있음

#### ○ <아티스트>는 왜 작품상 후보가 되었나?

- 우선 아카데미의 외국어영화상 후보기준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으며, <아티스트>는 이 까다로운 외국어 영화상 후보기준에 거의 안 맞음
-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상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적이 확실하고,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두드러져야 함
- 한 국가의 개인 자격으로 출품하며 영화산업이 부재한 지역의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
- 출품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79회를 기점으로 사라졌음
-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
- <아티스트>를 프랑스 영화 혹은 외국어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미국영화 산업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느껴지며, 프랑스를 대표하는 특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임
- 한 국가에서 한 작품만 후보로 출품할 수 있다는 것도 <아티스트>가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임
- 하지만, 미국 영화 혹은 영어권 영화에 편향적인 아카데미의 경향

때문이지, 이전에도 리안 감독의 <와호장룡>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<이오지마에서 온 편지> 등 영어가 사용되지 않은 외국어영화들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전례가 있음

## ■ <아티스트>의 제작기

### ○ 독립영화, 예술영화, 작가영화로써의 <아티스트>

- <아티스트>는 감독 미셸 아자나비슈스가 기획하고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은 독립영화이고 감독과 친분이 있는 토머스 랭먼 프로듀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는 했음
- 하지만, 스튜디오에서 기획하고 감독을 고용하는 스튜디오 지원의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아카데미의 주목을 받아온 영화들과는 차별성을 보임
- 감독인 미셸 아자나비슈스나 제작자인 랭먼은 독립영화인이라기보다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만들어온 미다스의 손들임
- 아자나비슈스 감독은 코미디첩보물 <OSS 117> 시리즈로 프랑스의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, 토머스 랭먼은 <아스테릭스와 올림픽>, <메스린: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> 등의 영화를 통해서 상업영화 프로듀서로 인정받고 있음

### ○ 21세기 흑백무성영화 제작은 상업적인 자살행위

- 블록버스터 감독과 상업영화 프로듀서가 함께 흑백무성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영화를 위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했음
- 프로듀서인 토머스 랭먼은 한 인터뷰에서 21세기에 흑백무성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“프랑스 안에서도 상업적으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” 고 제작의 어려움을 토로했음
- <아티스트>의 제작비가 1,500만 달러라는 것은 통상적인 블록버스터의 제작비와 비교하면 1/10 수준이기에 놀랍기도 함
- 하지만, 제작비를 조달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,



- 그 보다 높은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됨
- 그런 점에서 아자나비슈스 감독이 <OSS 117> 시리즈로 이미 호흡을 맞춘 장 뒤자르댕(<OSS 117> 시리즈로 호흡을 맞춰옴)과 베레니스 베호(감독 미셸 아자나비슈스의 부인이며, 그의 영화의 여주인공을 주로 맡음)를 캐스팅함
  - 또한, 랭먼이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비를 댔으며, 데뷔시절부터 함께 해온 음악감독 루드빅 보어스(Ludovic Bource)와 3번째 호흡을 맞추는 촬영감독 기욤 쉬프먼(Guillaume Schiffman)으로 꾸린 핵심 제작팀을 데리고 미국으로 온 것은, 제한된 제작비의 범위에서 팀워크가 중요한 프로젝트로써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을 것임
  - 사실 감독은 물론이고 토머스 랭먼도 프랑스 밖에서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음
  - 하지만 제작비의 제한이 있음에도 미국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<아티스트>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고, 로스앤젤레스와 할리우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임
  - 이렇게, <아티스트>는 주요 제작팀과 출연진은 프랑스에서 감독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구성되었고, 이를 제외한 나머지 팀은 현지에서 충원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음

## ○ 미국에서의 제작노트

- 미셸 아자나비슈스 감독과 토머스 랭먼 제작자가 미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기로 결정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캐스팅 에이전트를 결정한 일임
- 캐스팅 디렉터 하이디 레빗(Heide Levitt)이 캐스팅 과정을 전담했고, 이후로 스튜디오 사장 역할을 맡은 존 굿먼, 발렌타인의 기사 클리프톤 역할을 한 제임스 크롬웰, 조지 발렌타인의 부인인 페넬로피 앤 밀러, 무성영화 여배우 미시 파일 등이 합류했음
- <아티스트>는 대사보다는 바디랭귀지와 안면 표정을 중심으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, 최근에는 보기 힘든 형태의 캐스팅 프로포지션을 가졌음
- 그래서 이런 독특한 영화에 대한 소문은 산업 안에서 빨리

퍼져나갔음

- 또한, 세트 디자인, 코스튬 디자인, 메이크업, 카메라 등 영화에 필요한 다른 부서들도 현대에 촬영되는 것과는 다른 능력을 요구했고, 영화가 제작되는 당시에도 <아티스트>는 이미 영화 산업 안에서 유명한 영화가 되어 있었음
- 출연료를 거의 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말콤 맥도웰이 출연하겠다고 찾아왔다는 일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,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영화에 산업 안에서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
- 그렇게 <아티스트>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촬영을 마쳤다는 것이 후문이 있으며, 촬영기간은 35일이었음

#### ○ <아티스트>는 이미 영화 산업 속에서 스타로 인식

- 2011년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(전 세계 최초 공개)된 뒤로는 비평가와 배급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, 이후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음
- 주연배우 장 뒤자르댕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<아티스트>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것도 영화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
- 그 뒤로 <아티스트>는 제65회 BAFTA(영국의 아카데미, British Academy Film Awards)에서 작품상, 남우주연상, 각본상, 촬영상, 의상상, 작곡상을 포함한 7개 부문을 수상함
- 제69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뮤지컬 코미디 영화부문 작품상,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함
- 프랑스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세자르 어워드에서도 여우주연상, 촬영상, 감독상 등 9개 부문을 수상함

#### ○ 자국 밖에서 영화 만들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?

- 동화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, 이 제작노트는 자국 밖에서 영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음

- <아티스트>는 핵심 제작팀을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했음
- 물론 보통 만들어지는 영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점도 유효했지만, 현지에서 적응하려는 노력과 현지의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는 점이 주목됨
- 현지에서 충원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판단했다는 것도 유효했음

## ■ <아티스트> 아카데미 수상의 숨은 공로자

### ○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하비 와인스타인(Harvey Weinstein)

- 영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완성되기 전부터 이미 유명한 영화였음
- <아티스트>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미국 배급권을 사들인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하비 와인스타인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음
- 프랑스에서 편집 중이던 <아티스트> 감상을 위해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하비 와인스타인이 프랑스로 방문한 것은 영화 산업계 내에서 <아티스트>의 유명세와 <아티스트>가 미국에서 촬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님
- 영화를 본 뒤 와인스타인은 <아티스트>의 미국 내 판권을 구입하였음
- 이때는 칸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전이었으므로, 업계에서 오래 활동해온 하비 와인스타인의 감식안이 발휘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음
- 하비 와인스타인은 지난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<킹스스피치> 역시 미국 내 판권을 구입했고, 올해 작품상, 감독상 후보에 오른 다른 영화 알렉산더 페인의 <디센던트> 역시 제작한 프로듀서임
-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오스카 수상이 결정된 뒤 <아티스트>의 스크린수를 기존의 965개에서 2,000개까지 늘릴 것으로 결정하며, 수입이 오스카 이전인 3,180만 달러의 두 배로 뛰어오를 것을 예상함

- 일각에서는 <아티스트>가 4,500만 달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 같은 결정이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촌평을 던졌음
- 하지만, 와인스타인이 지난 해 오스카 작품상 수상전에 2,460만 달러를 기록하던 <킹스스피치>를 미국 내 극장수입 1억 3,820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, <아티스트>도 충분히 6,000만 달러까지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
- 2012년 3월5일 와인스타인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<아티스트>를 지원하고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종 도뇌르 기사장(슈발리) 수훈자로 선정되었으며, 이 훈장은 2006년 이창동 감독이 수여한 바 있음

### 3. 정리 및 시사점

#### ■ ‘2011년은 영화가 영화를 기억하는 특별한 해’

- 2011년에는 영화와 영화사에 대한 향수가 묻어나는 영화가 많이 있었음
- <타임아웃 뉴욕>의 영화부문 평론가 조슈아 로스코프는 2011년 영화계를 정리하는 <LA 위클리>의 기사에서 <휴고>, <아티스트>, <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> 등을 예로 들며 “2011년은 영화를 기념하는 영화들이 되풀이되는 실내악 같은 해” 라고 평했음
- 또, <빌리지 보이즈>의 짐 호버먼도 <휴고>, <슈퍼8>, <아티스트>를 열거하며, “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영화포맷을 디지털로 감상하고 상영하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가 발견된다” 고 말한 바 있음
- 동화 같은 프로덕션 스토리와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감식안을 가진 시장의 전문가와의 만남, 그리고 유행하는 아이템을 영화로 잘 소화해낸, 행운이 <아티스트>에게는 있었음
- 영화의 성공비결로 행운을 꼽는 것은 희박한 논리지만, 한 해를 정리하는 어떤 주류의 유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, 의도된 기획이 아니라면 행운이라고 혹은 시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음

## ■ 위험을 감수하라

- <아티스트>는 블록버스터를 만든 감독과 제작자이기는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기획된 영화가 아니었으며, 자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기획하고, 어떤 책이나 기존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시리즈가 아니라 오리지널 각본을 만들어냈음
- 흑백무성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흑백무성영화를 연구하고, 가장 흡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음
- 미디어는 무성영화라는 특징만으로, <아티스트>가 관객을 모으는 데 고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, 별다른 마케팅이나 캠페인 없이 <아티스트>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이유도 이 같은 미디어를 잘 이용했기 때문임
- 2월 시상식 시즌에 맞춰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지닌 후보작들이 다발적으로 개봉하는 연말에 제한적으로 개봉해 개봉관과 상영일수를 확보했고, 오스카 시상식 이후에 전략적으로 상영관을 늘린 것도 시기적절한 전략이었음
- 각 미디어가 선정한 거의 모든 “올해의 영화”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 것도 중요했음
- 외국어 영화, 미국 밖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, 외국 감독이 스튜디오에 고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든 영화가, 미국 영화산업이 수여하는 상을 받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임
- <뉴욕타임즈>는 <아티스트>가 영화산업과 영화인에게는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자기반영적 영화라는 사실도, 아카데미 회원들의 표심을 사는데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음
- 한 가지 덧붙이자면, 영화산업을 장려하는 국가에서는 외국자본이 자국에서 영화를 촬영해서 비용과 고용을 창출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음
- 미국의 경우 주마다 혜택이 다르고 미국이 아닌 영어권 국가에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제작비 규모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겠음